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토크쇼

“지역농정과 자치분권·균형발전”

사 회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패 널	김영배 성북구청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자기 소개

○ 김영배 구청장

- 서울에서 처음 친환경무상급식(2010년 10월 승의초 시범사업) 실시함.
-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큰 문제가 사람으로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역에서 얼굴있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아쉬움이 있음.
-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활동에 더 주력하겠음.

○ 송재호 위원장

- 제주도의 남제주 표선면에서 출생(현 서귀포시).
- ‘농촌이 잘살아야 잘사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음

○ 원희룡 도지사

- 남제주 중문면 출생(현 서귀포시 중문동).
- 감귤장학금으로 대학까지 마쳤으며, 현재까지 부모님 감귤농사를 짓고 계심.
- 어릴 때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 농사일에서 벗어나고파 공부를 한 케이스이나, 2014년부터 제주도 도지사를 하며 다시 농업과 관계를 맺고 있음.
- 풍년이 와도 가격조절이 안되는 문제 등으로 우리 농업과 농업인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임.
- 제주에서는 ‘농민들의 자조금을 많이 모아놓고 올해부터 가격안정제를 해보자’ 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음(가계 및 경비, 원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음.)

- 제주의 농업이 전국에서 약 18%정도 차지하며 가장 큼
- 올해도 석달간 가뭄이 있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상과 환경의 영향이 매우 커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선도하기 위해 추진 중.
- 제주가 불규칙한 기후변화 문제로, 모든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감귤나무 생산성이 떨어져 베어낸 폐원지는 태양열생산지로 이용 등 미래농업 등을 위해 노력중
- 12월 1일 감귤데이. (12brix 이상 산도 1% 이하 고품질 감귤)

○ 이춘희 시장

- 현재 세종시 인구 약 28만으로 주변 읍면지역 농촌지역 인구가 약 10만.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농통합시
- 세종시의 약 만오천명이 농업인, 농업비중 5%.
- 세종시 설계를 했던, 도시전문가가 시장이라 '농촌에 신경쓰지 않을까'하는 지역민의 우려가 있었음. → 두 가지를 설명함. 1. 농민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어린시절 벼, 보리 농사를 지으셨고 돈이 안되서 학비를 위해 담배농사를 짓기도 하심.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정이 큼
- 농촌을 살리는 것이 곧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전원도시). 도시의 장점과 농촌의 장점이 잘 어우러진 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다.
- 주변에 농촌이 있다는 것은 공원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공원이 존재하는 것.
- 위기를 맞고있는 세종시 농업을 어떻게 타개해갈 것인가? → 세종시의 농업도 도시농업으로 가야한다. → 1. 근교농업 2. 관광결합형 농업 3.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 그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현, 세종시 싱싱장터 월 매출 약 12억. 농가입장에서는 월 300-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 로컬푸드운동을 적극 전개하면, 농민은 소득증대,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음.
- 새로 들어온 이주민과 원래 있던 원주민(농업인)이 만나게 되어 세종시 내에 좋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음.

○ 박영범 이사장

- 세종은 연기, 공주 등 농업의 중심에 형성된 도시지역으로 자족도시를 꿈꿀 수 있음
- 제주는 감귤과 노지채소 중심의 농업.
- 도시와 농업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 마련, 전국 유이한 제주도-세종시 자취분권,

균형발전 행사 추진(송 위원장 추진). 농업에 가까이, 농촌에 가까이 가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자

세종, 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위

○ 송재호 위원장

- 최근에야 노무현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해하게 됨
- 우선, '제주도가 가진 가치를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함.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양의 정 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동아시아공동체가 가시화된다면, 동아시아공동체의 수도는 제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EU의 수도가 브뤼셀인 것처럼, 제3자적 관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 곳)
-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자치시를 통해 분권을 매개로 중앙정부 혁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음. 분권이라는 것이 당시로서는 거센 저항, 해일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라고 하는 다소 먼 지역을 선택해 특별자치로 분권의 모델로 삼으려고 한 것 같음. 중앙정부 모델의 판세를 바꾸고자 하는 큰 흐름.
- 아울러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 인천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비슷한 시간에 올 수 있는 거리에 행정수도를 놓자. 대전은 전국에서 모였다가 돌아가기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전 주변으로 행정중심을 두려 했고 그 장소가 바로 세종시.
- 세종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표되는 혁신도시라고 생각함. 즉, 지방분권은 제주, 혁신은 세종. 균형발전의 상징은 세종시, 분권의 상징은 제주도.
- 그래서 지역만의 특별한 발전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로 지정. 이러한 측면에서 두 특별자치시와 위원회가 모여 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같이하자고 함.

○ 김영배 구청장

- 크게보면 정부혁신 혹은 자치분권 이런 개념과 균형발전이 함께가는 시도. 한편으로는 도시입장에서 봐도, 농촌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지역에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자본이나 권력이나 큰 덩치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과 똑같음.
- 생활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에서 중앙집권적인 형태나 독점적인 행위들이나 정책진행이나 일방적인 진행 이러한 것이 똑같이 느껴지는데, 세종과 제주처럼 역사적 미션을 갖고 탄생한 곳이 중앙정부의 조직과 협업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큰 덩치와 작은덩치, 중앙과 지방, 재벌과 영세한 협동조합이 동등한 관계로 만나 협업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음.

○ 박영범 이사장

- 새정부가 자치분권 균형발전 시즌2를 하며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흐름이 농업과 농촌 영역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

○ 이춘희 시장

- 전국적으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함
- 현재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확실하게 하자는 논의 진행 중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큰 반대가 겉으로는 없는 것 같음
- 그러나, 우리 국민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음
- 지방에 무슨 일을 맡길 경우 잘해낼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됨. 허나, 모든 것을 중앙에서 다 통제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
-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운동을 다른 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고 그에 맞춰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동안은 중앙부처에서 만드는 법률을 갖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왔음.
- 특히 농업은 지역의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 지역에서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
-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만들어졌고 제주도는 자치분권의 특징을 갖고 만들어짐.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로 삼아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일정부분 부담을 느끼기는 함.
- 대한민국 전체가 투자해서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든 곳이 세종. 세종시 내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 중, 세종과 조치원,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컬푸드운동을 적극 전개 중이며 일정 부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이런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본다면, 다른지역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나 참고할 수 있을 것.
- 자치분권의 장점을 가장 크게 살릴 수 있는 것이 농업분야라고 생각하며, 지역농정은 자치분권과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운동이 자치분권의 기초가 될 것임.

○ 박영범 이사장

- 제주의 자치경찰 제도, 그동안의 경험 등을 간단히 소개 요청

○ 원희룡 도지사

-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위원회, 새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을 대통령 대신하여 추진하는 곳, 2개 위원회가 함께 모인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을 알맞게 잘 채워 열매를 잘 맺을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을 갖고 있음
-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을 세종시와 제주도가 만들어내야 함.
- 세종시는 안해본 행정적 역할을, 제주도는 이제 섬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단점이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장점. 작은 섬에서 시행해보고 육지에 추진하기 매우 좋은 여건. 대한민국이 처음 가는 길은 제주도에서 해보며 국가의 선도자치모델을 하게될 것.
- 대표적인 예로 탄소 없는 섬(카본프리), 태양광농사, 자치경찰, 대학에 대한 행정권을 제주도가 해보는 것.
- 현재까지의 실험결과는 제대로 권한이 넘어오지 않아 뚜렷한 성과가 없었으나, 새정부가 와서 이것을 이제 2단계로 가겠다고 하니 그에 대한 기대가 큼.
- 제주도에서 시범사업 해보고서 성공하거나, 실패를 해도 경험을 축적
- 제주도는 무비자이기에 세계의 브레인들과 안식년을 즐기려는 사람들 등을 끌어오려 함.
- 제주도는 각 마을마다 마을총회로 이장을 직선제로 뽑고 있음. 마을 향약 같은 것을 만들어 몇 년 이상 살아야하는 등을 해야 마을 주민으로 인정해줌. 즉 공공체가 살아있어 주민자치 실현 추구가 가능. → 내부 질서는 질서대로 쌓되 권한을 과감히 이행이 되어야한다. 국가는 지방, 풀뿌리로 권한을 이행해줘야한다.
- 농업과 연계된 부분에서도 분권에 의한 선도적 모델, 미래를 준비하고, 농민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김영배 구청장

- 2010년,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서울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시농업만으로는 한계가 많아 고민함. 도시농업을 아무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먹기에는 어려움. 작년 통계로 약 2조 9천억이 급식비. (어린이집까지 다

합치면 약 4조정도 규모로 기억, 농업 시장규모는 약 40조)

- 서울은 소비지로서 구매파워가 있어 이를 조직화하고 공공화할 수 있다면 좋은 구매자로서 '내 몸을 살리고 사회도 바뀌어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추진했으나 매우 힘든 구조.
- 아울러 좋은 파트너를 구하기 힘들다. 시장은 뜻이 있어도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가 않은 한계, 친환경과 일반, 작물재배 현황 등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한계가 많음. 이러한 것을 책임있게 해 가는 선의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면 좋겠음.

○ 박영범 이사장

- 먹거리 주제로 이야기 먼저 하고 이후 농업농촌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전개

사회연대경제, 먹거리

○ 김영배 구청장

- 급식문제를 다루다보니, 대부분의 병이 먹거리 그리고 먹거리와 연관된 생활습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많음.
- 4년전 고등학생 대상 아침 결식율을 보니 1/3 수준, 아이들의 당뇨병, 비만율도 매우 빠르게 증가. 건강한 시민으로의 생활이 가능한가 생각함.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2011년에 만들어 농촌자치단체와 도시 발자치단체가 주가 되어 움직여옴
- 지역간 연대를 통해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하니 권한이 없거나, 규모 대 규모가 만나 공적 기구간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도시들 간의 끈을 연결하는 협동조합이나 먹거리 조직들이 꾸려져 있지 않아 새롭게 만들어야 해 속도가 매우 더딘 한계점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들이 반복되어 왔음.
- 제주와 세종은 서로의 도시 먹거리 공동체를 시민생활에서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조사부터 실태조사, 활동계획 등을 짝 같이하면 좋겠음
- 성북구가 푸드플랜을 하기위해 기초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해본 결과 많은 한계에 직면, 성북구는 서울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았으나 제주와 세종은 독립된 자치구이므로 여건이 좋음.

○ 이춘희 시장

- 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현재 급식은 정부입찰제를 따라 가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를 먹인다고 생각하면 가격으로만 결정하지 않을 것. 시스템 개선이 가장 중요.
- 세종은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을 연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농산물을 누가 생산했는지 알 수 있어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자기이름을 걸고 만든 농산물이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고 로컬푸드를 구매함.
- 학교급식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급식센터를 만들어 세종시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품질을 확인하고 지원하려 함. (세종시가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비용을 일부 지원하려하고 있음)
-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공공급식센터를 만들어 가격뿐 아니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해 공급할 수 있게 하려함. 식자재는 세종시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구조 속에서 로컬푸드로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 이는 지방분권으로 가능한 것.
-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역할이 너무나 크고 중요함.

○ 김영배 구청장

- 무상급식 추진시 가장 큰 문제는 급식의 질이 너무 낮은 문제.
- 학부모를 대상으로 품평회를 개최한 후 쌀을 공동구매 함. 김치와 수산물도 품평회를 거쳐 공동구매 하였으며,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가 절약한 금액이 약 17%로 10억 수준.
- 과일급식을 최초로 추진함.)우리나라 아동들이 과일을 일주일에 1.7회정도 섭취. WTO에서는 건강한 아이들은 일주일에 4회정도 과일을 먹는다고 함)
- 또한,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었고, 산지와 MOU를 맺어 교육도 하는 등으로 꾸려옴
- 그러나 교육감이 바뀌며 구매를 학교별로 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져 공동구매를 할 수 없는 학교가 속출했음. 자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
- 공공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책임성있게 하며 자치권을 가져갔으면 좋겠음

○ 박영범 이사장

- 공공급식과 공공조달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 공적으로 먹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농업농촌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원희룡 도지사

- 농업은 가장 대표적인 민간의 영역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구조 속에서 정부는 보조를 늘리는 구조로 가다보니 자칫하면 의존적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행정입장에서는 농업을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보게 됨. 사람이 빠져 있음.
- 정책 문제를 결정할 때 당사자, 농민들이 들어오는 협치가 필요로 함. 3년 전만 해도 협치는 매우 생소한 단어였음.
- 각각의 농민들과 생산단체, 유통조직들과 오랫동안 논의를 거치며 결정...
- 농업회의소가 법적 지위를 갖고, 현재 농협, 농민단체 등 다 따로 되어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모여 농업회의소를 통해 공적인 영역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했으면 함.
- 현재 제주도에서는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농업회의소를 논의하며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협치의 조직화는 농업회의소 내지 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정책과 현장의 결합, 정책에 대한 수용, 정책의 결과도 현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이를 위해 자조금과 연계하여 행정 지원(매칭지원), 생산조직화가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핵심. 자조금 등과 같은 고통분담을 통해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함.

○ 박영범 이사장

-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농업농촌 강조, 책 제목에 대한 코멘트

○ 송재호 위원장

- 생수가 석유보다 비싼 시대. 시대는 많이 바뀌었으나 우리는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것이 큼
- 가장 낙후한 지역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생태적으로 가장 건전하다. 생태적 건전성에 주목. 생태적 건전성이 새로운 문명의 발달이라고 보면 농촌이야말로 서울의 병과 중앙정부의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
-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이것이 중앙발전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
- 농식품부가 '18년부터 먹거리마스터플랜 추진 예정이므로 기대함.

○ 박영범 이사장

- 살리고, 지키고, 창출하는 농촌식의 순서로 말씀해주셔서 교감이 잘 된 것 같음
- 성북구 인구가 줄고 있음(폐교 1개교, 도시의 문제가 증폭되는 단계. 인구가동, 자산이동)

- 도시와 농촌의 상생, 청년층과 40세 미만의 귀촌인구 비율 높은 구조 등 속에서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김영배 구청장

- 48만에서 45만으로 인구 감소. 감소한 3만명 대부분이 30대. (50대 중반 이상은 약 1%), 도시가 갖고있는 피폐성을 보여주는 것.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땅값은 계속 오르는 등 도시생활의 지속가능성이 고민됨.
- 하프턴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고려한다고 함. 지방에 있는 도시와 MOU를 맺고 여러 캠프나 학교, 센터 등을 통해 인생 2기, 3기를 준비하고 있음.
-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대도시와 지방정부가 MOU를 맺고 체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음. 특별히 50대 초반부터는 30-40년 더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
- 커뮤니티, 일거리, 문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를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고민하고 풀어가는 일종의 동맹관계가 풀어가야 할 시기가 왔다.
- 경기도는 학교가 없어서 난리. 수도권은 자기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옴.

○ 이춘희 시장

- 농업문제를 얘기할 때 3농 농업 농촌 농민 세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어느쪽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해왔을까 생각해 보면 농식품부는 주로 농업에 포커스를 맞춰 농정을 해왔음. 농업에 포커스를 맞춰 일해왔는데, 잘 안되어왔다면 '이제는 농업 농촌 농민 중 농민에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노력들, 농민들이 농산물을 식품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농산물을 이용해 도시민들이 김치도 만드는 등 직접 가공에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 세종시 농업생산 약 5천억. 농업관련 예산이 약 1천억 수준, 20%를 보조에 사용 중. 보조가 매우 비효율적(어떤 예산은 너무 많고, 너무 적고 등등) → 중앙부처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니 제대로 맞지 않음. 농업이야말로 로컬리티, 지역성이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시각에서도 가장 먼저 시도해볼 만한 영역임.
- 자치분권과 농정의 연관성에 대해 말하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음.

○ 원희룡 도지사

- 기후변화 특히 물부족 문제, 가뭄, 농산물의 적정재배 분포가 바뀌고 있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반적 대응, 미래의 기후 변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와 농촌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농촌이 식량의 생산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까지 겸하며 소득과 생산성 문제까지 보완해나가는 방안 모색.
- 도시가 믿지 못한 먹거리의 안전성, 도시공간이 줄 수 없는 대자연,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 농촌체험 제공 바람직
- 제주도는 일손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감귤수확단을 모집해 비행기값을 대주고 일당까지 주고 주말엔 관광프로그램까지 가이드 붙여 해주고 있음. 농업노동력 부족과 도시지역의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 좋겠음.

○ 박영범 이사장

- 지방정부의 역할과 능력 중요. 지방정부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 현실적으로 제도적 한계가 많고, 지방정부 공동의 행정도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지방정부의 플랫폼에서부터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송재호 위원장

- 로컬리티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협업을 위한 연결고리를 많이 발굴하여 협업과 분권에 노력, 농업농촌을 잘 살리는 것이 국민을 보존하는 길.
- 부처의 세력이 농식품부는 취약하다는 의견에 대해 균특법 제정을 통해 시행령과 규칙을 바꾸어서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박영범 이사장

- 우리가 보통 국민의 농업을 이야기하며 농업, 농촌, 농민 한정된 시야에 갇혀 있었으나 이를 넓힐 수 있는 계기, 5천2백만 국민 전체가 우리 농업 농촌과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음.